

의료 취약지 전남, 의대·병원 생기고 지역의사 배치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선정되면서 급물살...보건복지부 설립 확정
노인인구 1위·의사없는 섬 164개...열악한 의료 인프라 확대 기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30년 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숙원 사업이다. 그만큼 열악한 의료 실태를 해결 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호소가 절실했다는 얘기다.

열악한 의료 실태는 여러 통계로도 확인된 상태 다.

전남은 노인 인구비율 전국 1위(26.3%), 장애인 인구비율 전국 1위(7.6%)다. 도내 276개 유인도 중 의사가 없는 섬만 164개에 이른다.

게다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군이 의료 취약지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6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도 전 남은 9.7%로, 전국 평균(4.7%)을 훌쩍 넘고 치료 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단위 인구(10만 명)당 사망률로 환 산한 ‘치료 가능 사망자 수’도 전남은 44.1명으로 서울(36.4명)보다 많다. 인구 10만 명 당 전체 사 망률, 뇌질환 사망률, 암·만성질환 부문에서도 1위 에 올라있다.

전남도 내 분만 가능기관은 1.1개, 신생아 중환 자실은 3.2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산모와 태 아 집중 치료실은 물론 어린이 전문 진료센터와 뇌 졸중 센터는 전무하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한 ‘골든타임’도 늦기 일 켜다.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이용률은 53.8%로 전국평균(72.2%)보다 20%p 가까이 낮다. 응급환 자 관내 치료를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몇 차례 정권이 바뀌고서야 이뤄지는 게 아닌 진즉 이뤄졌어야 하

는 핵심 현안이었다.

전남도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이전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뒤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한 의대유지추 진단을 설치하고 전문가·경제계·학계·시민사회단 체 등이 참여하는 300여명 규모의 범도민추진위원 회를 출범시키며 30년 숙원 사업 실현에 공을 쏟아 왔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 합을 합의해 한 목소리로 의대 설립에 나섰지만 비 상계엄 사태와 의정 갈등 격화로 주춤한 뒤 이재명 정부 들어 ‘의대없는 지역 의대 설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이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확정됐다.

전남 국립의대에는 2030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해 오는 2036년 의사 양성교육을 마치고 배출된다.

또 정부의 지역 의사채 추진으로 인해 전남의 의 료 혜택은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신입생을 중진료관(44개), 광역(6개)으 로 구분해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의과대학에 입 학한 학생은 졸업 후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전남의 경우 6개 권역으로 나뉜다.

광주와 전남에서 근무하게 되는 지역의사전형 입 학생은 전남대와 조선대에 총 62명이 배정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선발과 교 육, 정착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 입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를 비롯, 생활 비까지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구청사 신관서 업무 시작

광주 북구청사 신관 입주식이 10일 문인 북구청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신관은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졌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 10곳 중 6곳 AI 기술·서비스 이용한다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중은 1% 그쳐

광주·전남 기업체 10곳 중 6~7곳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매출 액 대비 투자액은 1% 비중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공표한 기업정보 화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0인 이 상 민간 부문 기업체의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이용 비중은 광주 67.7%·전남 59.0%였다.

광주 전체 사업체 4524곳 가운데 3064곳, 전남 은 6710곳 중 3960곳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었 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 이용률 32.9%의 2배 수준 에 달했고, 17개 시·도 가운데 나란히 1~2위를 차 지했다.

광주 AI 이용률은 2022년 30.9%, 2023년 60.5%, 2024년 67.7% 등으로 해마다 늘었고, 전

남도 55.6%(2022년)→43.6%(2023년)→59.0% (2024년) 등으로 오름세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AI 기술 유형(복수응답)을 보 면 광주 71.1%(2179개)·전남 67.4%(2669개)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사물·사람을 식별 하는 기술을 이용했다. 이어 ‘문서작성·정보 수집’, ‘의사 결정 지원’, ‘업무자동화 지원’, ‘데이터 분석 을 위한 머신러닝(기계 학습)’ 등도 이용하고 있었 다.

AI를 이용하는 목적(복수응답)은 ‘기업 보안’이 광 주 65.6%(2010개)·전남 58.3%(2309개) 가장 많이 꼽혔다. ‘비즈니스 관리 프로세스 또는 관리 조직화’, ‘생산성 향상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 개 선’, ‘회계·재무관리’ 등 목적도 있었다.

광주·전남 기업체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 해 다양한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갑을 여 는 데는 인색했다.

AI 기술 이용 형태(복수응답)를 물어보니 광주

59.4%(1821개)·전남 50.5%(1999개)는 무료 서 비스(프리웨어)를 쓰고 있었다. 상용 소프트웨어 나 시스템을 구매하는 기업은 광주 39.3%·전남 28.3%로 나타났고, 자체 개발하는 기업은 광주 4.4%·전남 8.0%에 그쳤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에 투자(비용 지출)하는 기 업 비중은 광주 21.8%(986개)·전남 14.8% (990개)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비율 8.3%를 웃돌았다. 전국에서 광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 고, 서울(15.2%), 전남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 대비 인공지능 투자액 비율은 1%대에 그 쳤다.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평균 투자 율은 광주·전남 각 1.1%로, 전국 평균 투자율 2.3%를 밑돌았다. 광주·전남 기업체 95%는 투자 액 비중이 1% 이하였고, 5%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평균 투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6.9%)이었고, 울산(4.4%), 서울(3.1%) 등 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단체 헌혈자 수 전국 2위

지난해 참여 인원 5909명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수가 전국에 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도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단체 헌혈 참여 인원은 총 59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헌혈버 스를 이용해 단체 헌혈에 참여한 이들로, 광주·전남지역이 대전·세종·충남(8865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역에서 단체헌혈 참여가 가장 활발한 곳은 해남이다. 해남은 전남 지자체 중 헌혈 관련 예 산을 가장 많이 편성해 운영 중이며 분기별로 군 청과 보건소, 우של체육관, 로컬푸드마켓 등 4곳

에서 정기적으로 헌혈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1위를 차지한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단체 헌혈을 실시하는 지 자체 비중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 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단체 헌혈 횟수를 점 진적으로 늘려 혈액 수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 다는 방침이다.

한편, 10일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혈액 보 유량은 5.5일분이다. 최근 진행한 ‘두쫘쿠(두 바이 쫘둑 쿠기)’ 이벤트 등이 호응을 얻으며 혈액 수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혈액원은 설 연휴 전후로 지역 카페 10곳이 기부한 쿠폰 1500개를 활용해 ‘3차 헌혈자 두쫘쿠 증정 이 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유치원·초2 이하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 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

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 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개부 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곡!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곡 바로 바로 확인까지 곡!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